



[라이프] '앞광고'에 소비자 웃고 식품업계 매출도 방긋
니



Life

[바이오] 식약처, 61만명분 독감백신 회수 명령
L2



해금강 유람선... 바다 위 케이블카... 남해안 자연이 건네는 치유

메트로 트래블

아이앤디투어, 남해안 상품 출시
김포-사천 왕복 항공편·숙식 포함
인기 관광지 투어·지역 특식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트렌드가 휴식과 치유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여행전문 여행사 아이앤디투어는 하이에어항공으로 출발하는 남해안 1·2박 여행상품을 새롭게 내놨다고 11일 밝혔다. 하이에어에서 김포-사천간 항공편을 지난 9월 25일부터 신규 취항해 남해안관광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선 상품가부터 가격적이다. 1박 2일에 최소 17만6000원부터다. 2박 3일 상품이 구성을 보면 27만8000원부터며 왕복항공, 현지 전용차량, 펜션숙박(오션뷰), 2박6식, 관광지입장료(케이블카, 유람선)기사, 가이드 수고비까지 포함된 상품이다. 왕복항공 가격을 따져보면 여행사에서 뒤편을 남겨 줄 정도의 가격구성이다.

아이앤디투어 여행사에서 밝힌 여행특전을 보면 최소5명부터 단독출발 가능하며 14명부터는 대형관광버스 28석 리무진으로 여행할 수 있다. 노팁, 노쇼펜, 노옵션 상품이기도 하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



다랭이마을.

/아이앤디투어

◆1박·사천·거제·통영·남해

1박2일 상품과 2박3일 상품은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1박2일 상품은 바다의 금강산 거제 해금강 유람선·외도 보타니아, 남해의 소금강 금산과 보리안, 바다위를 통과하는 사천 바다케이블카,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통영 동피랑벽화마을·독일마을·다랭이마을을 체험여행한다.

식사는 거제 대운탕·남해 갈치조림·멸치쌈밥 정식과 회무침, 생선구이 등 특식3회가 포함된다. 매주 목, 금, 토, 일요일 4회 출발한다. 숙소는 남해갯마을펜션이며 개별 여행자보험만 불포함사항이다.

◆2박·여수·순천까지

2박3일 상품구성은 1박2일상품에 여수 오동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순천만국가정원·갈대밭 일정이 추가된다. 식사는 6식제공으로 1박2일 기본식에 순천 꼬막정식과 짬뽕어탕 특식 3회가 추가된다. 매주 목, 금, 토 3회

출발이며 2일차 자유식사와 개인경비, 여행자보험만 불포함사항이다.

오전 7시 10분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일정이며 돌아오는 일정은 1·2박 상품모두 저녁 8시50분 김포공항 도착이다.

상품을 기획한 아이앤디투어 이장현이사는 "경상남도과 경상남도관광협회 지원으로 상품일정을 짤 수 있었다"며 "1·2박 상품 모두 여행, 식사, 숙소등 면밀히 구성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이앤디투어로 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관광협회는 다음달 11월 6일까지 '나만의 힐링여행 in 경남, 브이로그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총 20 작품에 1350만원의 시상이 걸려있는 공모전이고 경남의 비대면 여행지, 캠핑, 해양(섬), 산림, 레저 등을 소재로 여행 장소별 특성과 체험담이 잘 드러나는 영상에 대해 응모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서울시민 "코로나 종식 후 해외여행 가고파"

서울관광재단

서울시민 대상 집단심층인터뷰
포스트코로나 관광 트렌드 전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들의 외식, 여가, 관광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확인하고, 이 같은 변화가 향후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집단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총 48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령, 결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코로나19 전·후의 달라진 외식, 여가, 관광 활동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집단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1위 해외여행, 2위 여가 활동, 3위 친구·지인 모임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일상이 자유로운 외식, 여가, 관광 활동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8명은 외식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식의 형태 측면에서도 배달, 방문 포장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내여행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 여



름 기준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42%, 경험이 없다 58%로 집계되었으며 국내 여행지로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선호도가 코로나19 전후와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관광재단은 ▲개인 중심의 안전 여가·관광 트렌드 강화 ▲사람 간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외식·여가·관광 사업체의 실내 공간 재배치 활성화 ▲사람들의 좁아진 일상 범위를 고려해 지역 내 관광 사업 및 생활 속 관광 강화 ▲외식·여가·관광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며 비대면 리드타임 관리 중요성 증가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4가지 관광산업 변화 트렌드로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고양시 '데스티네이션 위크' 21일 개최

아시아 최초 MICE 국제회의

경기 고양시는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10월 21일로 연기해 2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아시아 최초 MICE 목적지 관련 국제회의로 선도적 MICE 도시인 고양시 브랜드를 형성하고 MICE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행사다.

올해로 4회를 맞은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21일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과 22일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날인 21일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소노캄 고양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이원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MICE 데스티네이션 회복: 위기관리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포럼은 글로벌 MICE 컨설팅사 게이닝에지의 회장인 게리 그리머의 발제에 이어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주제 발표 및 연사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둘째 날 행사는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과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가 버추얼 웨비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도심 속 서핑... 시흥 거북섬으로 파도 타러 가자!

포 최초 인공서핑 테마파크 부분개장

경기도·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대원플러스그룹 등이 참여한 총 면적 32만5300㎡ 규모의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 복합테마파크 '웨이브파크'가 지난 7일 부분 개장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만에 개장하는 '웨이브파크'는 수도권 주민들이 한 시간이면 에메랄드빛 인공해변과 파도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축구장 5배 크기



웨이브파크 리프존을 처음 경험하는 프로서퍼 /웨이브파크

로 조성되었다.

스페인인스포르테크 기업인 웨이브가든사의 인공파도 시스템을 도입해 만들어진 웨이브파크는 서퍼뿐 아니라

서핑을 즐기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공서핑장과 함께 카페테리아, 글램핑장, 스케이트보드 뱅크, 스킨스쿠버 풀, 웨이브 풀 등 각종 편의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이 함께 모여 있다.

한편 웨이브파크 측은 앞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서퍼들이 이곳을 찾도록 할 것이며 국내 서핑 리그대회도 자체적으로 조직해 개최해 한국이 세계 서핑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휘닉스 평창 올인클루시브 '원스톱 힐링여행'

다양한 부대시설·액티비티 한번에

휘닉스 평창 올인클루시브 상품이 가을을 맞아 고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올인클루시브상품은 포레스트 파크의 푸른 숲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부대시설과 액티비티를 아무 고민 없이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휘닉스 평창의 대표적인 힐링여행 상품이다.

휘닉스 평창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올인클루시브 상품은 프리미엄, 플러스, 베이직, 베이직라이트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각 등급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객실과 부대시설 등 고객이 직접 여행 취향에 맞게 선택해 구

성할 수 있어 더욱 재미를 더한다.

휘닉스 평창의 올인클루시브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하면 여행 중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해발 1050m의 몽블랑 정상에서 도시락을 즐길 수도 있다. 또, 오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와 라이브 공연이 포함된 와인 마리아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휘닉스 평창 올인클루시브 상품에는 몽블랑 정상으로 향하는 관광곤돌라,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키즈 플레이라운지, 오대산 입장권 등의 액티비티 5종 이용권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민희 기자